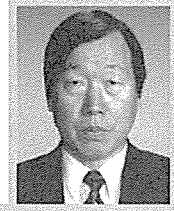


銳氣와

老熟의 팀웍



한국정보감리컨설팅(주)/회장 최금영

얼 마전 모 전문지에 “한국전산원의 정보시스템감리인 자격자가 나이 많고 은퇴한 기술사나 전산부장들이 많아 감리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과 비슷한 글을 기고한 중늬은이(이하 K형이라함)가 있었다. 이 주장을 하는 이도 30대 후반쯤이니 현재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계 나이로 보면 중늬은이가 적절한 표현일 것 같다.

대저 소프트웨어에는 “오직 이 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정답이 없다는 것이 이제까지 통념이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아마 불변일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이란 측면에서 우리 같은 늬은이들이 감리라는 수단으로 해야할 역할은 무엇이란 말이며, 예의 중늬은이 K형이 주장하는 품질 우려는 무엇이란 말인가?

모르긴 몰라도 K형이 우려하는 것은 오늘날 급속하게 변하는 정보기술을 은퇴할 나이의 늬은이들이 언제 공부나 했을까? DW, KMS, GroupWare, WEB환경, EC, 홈페이지 구축, 보안 등 쫓아지는 신기술을 모르면서 어떻게 감리를 한다는 말이나, 적당히 요식행위나 하는 것이 아닌가 등등

이겠지.

그러나 K형이 간과한 것이 있다면 정보시스템감리는 통상 4명 또는 그 이상의 감리인들이 한팀이 되어 일을 하며, 참여 감리인들은 K형이 우려하는 한국전산원 자격자 늙은이들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젊은 고급기술자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고, 또 하나 근래 기술사 합격자는 대학 4학년 2학기에 기사1급 따고, 졸업 후 4년 경력이면 응시가 가능해 20대 기술사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K형이 우려하는 것처럼 감리 대상업무 내용에 맞게 젊은 銳氣와 늙은 老熟이 한팀으로 편성하는 것도 소프트웨어 품질 향상에 매우 중요하여 각 감리법인들은 젊은 감리인의 수혈에 노력하고 있다.

K형의 주장을 다른 차원에서 풀어보기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어귀를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프로젝트관리는 기술보다는 경험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정보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프로젝트관리자(PM)의 경험에서 축적된 능력과 지도력에 좌우된다. 따라서 경험이 많은 PM을 상대하는 감리인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보다 좋은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둘째 감리란 개발자의 잘못을 문책하는 것보다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하는 컨설팅적인 업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

현일 것이다. 자칫 젊은 감리인들이 마치 감사인인양 개발자를 질책하고 과격한 조치를 내려 과업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럴 때 노숙한 감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셋째 소프트웨어의 개발 관점에 관해 경험이 많은 자와 젊은이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3년 간 감리를 통해 경험한 정보화 개발사업에서 개발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로 현업의 업무처리가 네트워크 활용이나 전자결재 등 실무자선에서 대부분 수행되고 있다는 점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인지 요구사항의 기준이 경영자나 고위 관리자보다는 실무자중심으로 도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분야에서도 늙은이들이 배운 전통적인 Executive Interview로부터 얻어지는 조직의 핵심성공요소(CSF)가 요구사항 도출의 근간이 되어야 시스템의 수정이 적고 수명이 오래간다는 중요한 사실이 중국에는 소프트웨어의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예를 보더라도 경험이 많은 Old Boy(Pro라 하는 것보다 마음은 아직 젊으니)들이 감리에 참여하는 것이 K형이 우려하는 소프트웨어 품질 저하보다도 오히려 품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물론 Old Boy들도 중늙은이한테서 이런 소리 안 들으려면 책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기회를 빌어 한 마디 한다면 현재 대형 SI업체의 소프트웨어 개발부서의 차장만 되면 관리자로서의 길로 가기 위해 책을 놓는

이들을 너무나 쉽게 보아왔다. 이들이 가까운 장래에 IPAK 회원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K형의 꾸지람을 들을지도 모르니.